문화적 도시재생(서울 영등포구)

사 업 계 획 서

2019. 5.

영등포구

〈 목 차 〉

Ⅰ. 사업개요 ····· 1
□ 사업기간 ····· 1
□ 총사업비 ····· 1
□ 사업 주요 내용 ····· 1
□ 사업의 개념 및 가치 정의 ····· 2

Ⅱ. 사업대상지 현황 (쇠퇴지역 및 공공공간) ····· 3
□ 쇠퇴지역 현황 ····· 3
□ 공공공간 현황(사업대상지) ····· 7

Ⅲ. 사업계획 구성내용 ····· 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2
□ 소프트웨어 사업 내용 ····· 13
□ 하드웨어 사업 내용 ····· 17
□ 사업추진체계(휴먼웨어) ····· 18
□ 사업연계 및 복합 추진계획 ····· 19
□ 문화재생 운영의 지속가능방안 제안 ····· 21
□ 기대효과 ····· 21
□ 사업추진일정 ····· 22
□ 기타사항 ····· 23

Ⅳ. 소요 예산 ····· 24

【 사업계획서 요약본 】

□ 사 업 명 : 문화적 도시재생(서울 영등포구) - '문화생산도시리빙랩'
□ 사업기간 : 2019년 6월 ~ 2020년 2월
□ 총사업비 : 400백만원 (국비 200백만원 / 지방비 200백만원)
 ○ 휴먼웨어 : 120백만원 - 총괄기획자, 전문원, 행사스텝(단기) 활용
 ○ 소프트웨어 : 200백만원 - 도시자원아카이브, 문화재생 공유테이블/포럼, 협의체 구성, 장인&예술가협업(창의기술랩), 리빙랩(제안사업), 축제 등
 ○ 하드웨어 : 80백만원 - 공간구상 용역 / 커뮤니티 공간 조성
□ 현황진단 및 분석결과
 ○기계・섬유・식품 중심이 대규모 공장 밀집 지역이었으나 지방 이전으로 대상지 주변부는 아파트, 쇼핑몰 등으로 재개발되고 현재 대상지(문래동2가 및 문래창작촌)만이 도심 속 섬처럼 쇠퇴하여 젠트리피케이션에 직면
 ○대상지는 세운상가와 같이 오랜 시간 숙달된 기계금속장인과, 300여명의 예술가에 의한 자생마을로 문래창작촌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
□ 사업 주요내용
 ○ (자원발굴&제안사업) 도시자원아카이브/ 리빙랩 시범프로제트 및 술술협력센터 시범운영프로젝트 등 제안사업/ 문화재생축제
 ○ (거버넌스 구축) 문화재생 공유테이블/ 포럼/ 협의체 운영/ 컨설팅
 ○ (공간조성) 술술협력센터 공간구상/ 술술협력센터 커뮤니티공간 조성
□ 사업 추진일정
 ○6월 (2019)
  - 지역 주민, 예술가, 장인 대상 영등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설명회
  - 술술협력센터(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기록 및 보존 물품 정리
  - 술술협력센터(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환경 정비
 ○ 7월~8월
  - 협의체/공유테이블/포럼 등을 통해 거버넌스와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 술술협력센터 공간 시범운영프로젝트 공모 및 추진(1차)
  - 대상지 리빙랩 시범프로젝트 공모 및 추진(1차)
  - 도시문화자원아카이브 기획 및 실행
  - 술술협력센터 공간구상 용역 추진
 ○ 9월~10월
  - 술술협력센터 공간 시범운영프로젝트 공모 및 추진(2차)
  - 대상지 리빙랩 시범프로젝트 공모 및 추진(2차)
 ○ 11월~12월
  - 문화재생축제 기획 및 추진
  - 술술협력센터(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구청 자체 사업)
 ○ 1월~2월 (2020)
  - 문화재생 성과공유포럼
  - 술술협력센터(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예술간판 제작 및 설치
□ 사업 기대효과
 ○ 지역 주체 주도와 개발지 내 공공시설 선점으로 느린 젠트리피케이션 유도
 ○ 대상지 인근 주민, 장인, 예술가, 상인의 주체별 소통의 장 마련 및 활성화
 ○ 문래장인예술가협동조합의 구축과 거버넌스 주도 재생 문화 형성
 ○ 문래동 지역의 산업과 마을 연계형 창작촌이라는 지역 정체성 지속
 ○ 서울시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적 도시재생의 성공모델 제시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적 도시재생(서울 영등포구) - '문화생산도시리빙랩'

□ 사업기간 : 2019년 6월 ~ 2020년 2월

□ 총사업비 : 400,000천원

 ○ 국 비 : 200,000천원
 ○ 지방비 : 200,000천원

□ 사업 주요내용

 ○ 대상지특성 :
  - (사업범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역 및 경인로 일대 (521,000㎡)
  - (거점공간) 서울 영등포구 문래2가 20-2 (연면적 636㎡, 지상5층/지하1층)
  - 경인로 주변은 과거 기계・섬유・식품 중심의 대규모 공장밀집지역이었으나 지방이전으로 공장부지는 아파트, 쇼핑몰 등으로 재개발되고 현재 대상지(문래동2가 및 문래창작촌)만이 도심 속 섬처럼 남아 쇠퇴하여 젠트리피케이션에 직면
  - 대상지는 세운상가와 같이 오랜시간 숙달된 기계금속장인이 있으며, 인근 문래창작촌이 10여년 전부터 예술가마을을 형성하여 지역정체성 획득
  - 영등포공유원탁회의, 문래마을예술인회의 등 지역의 문화거버넌스 구성 및 활성화 확대

 ○ 사업개념 :
  - 예술인, 기술인,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발견・연결・협력 거버넌스**
  - 지역의 기억으로부터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지역 재생**
  - 도시의 문제를 예술-기술-마을 협력으로 해결하는 **삶의 기술 문화 캠퍼스**

 ○ 주요내용 :
  - (자원발굴&제안사업) 도시자원아카이브/ 리빙랩 시범프로제트 및 술술협력센터 시범운영프로젝트 등 제안사업/ 문화재생축제
  - (거버넌스 구축) 문화재생 공유테이블/ 포럼/ 협의체 운영/ 컨설팅
  - (공간조성) 술술협력센터 공간구상/ 술술협력센터 커뮤니티공간 조성

 ○ 추진주체 :
  - 사업추진주체 : (총괄) 영등포문화재단
    (워킹그룹) 예술인+ 문래기계금속소상공인
  - 연계협력주체 : 영등포공유원탁회의

※ 워킹그룹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토록 협동조합(또는 쇼셜벤처)으로 구체화

□ 사업의 개념 및 가치 정의

○ 발견・연결・협력 거버넌스

-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연결되지 않은 주체의 협력문화 형성

구분	현황	발견	연결	협력
소공인	제조업1,355개	서울소공인협회 회원 100명	・개별예술프로젝트 중심의 소공인 연결 ・마을계획단과의 연결고리는 전무	소공인-예술인-주민 협력 거버넌스와 프로젝트 부재
예술인	창작자300명	문래창작자네트워크 참가예술인 100명		
마을주민	주민30,000명	문래마을계획단 참여주민 100명		

○ 온고지신(溫故知新) 지역 재생 문화센터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가칭, 예술기술융복합협력센터/약칭, 술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옛 기억을 발굴하고 모으고 고쳐 쓰면서 새로운 지역의 가치 창조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과 협력.

근대조성 장소 (1980년 이전)	사라진	조선피혁회사, 경성방직, 조선맥주 등	생활재생산도시
	남은	경부・경인 철도, 대선제분공장과 부지 등	
현대 조성 장소 (1980년 이후)		롯데백화점, 타임스퀘어, GS쇼핑 아파트형공장, 문래기계정밀공업지구 등	소비유통도시 주문하청생산도시
미래 가치 (2020년 이후)		영등포 문화의 거리와 예술광장 조성, 문래영등포도시재생(MY FACTORY), 대선제분재생,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건립	문화생산도시

○ 삶의 기술 문화 캠퍼스

- 일과 놀이, 학습의 통합으로 도시와 마을이 처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기술・마을 협력 생태계
  - ▷ 예술가들의 창작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 생산활동이 되고,
  - ▷ 문래동 소공인들은 예술가-주민과 협력하며 쇠락해가는 주문하청 생산자에서 도시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기술생산자로 거듭나며,
  - ▷ 문래동 일대는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현장 기반 전환기술 교육과 예술교육의 중심이 되어가는, **삶의 기술 문화 캠퍼스**

Ⅱ. 사업대상지 현황 (쇠퇴지역 및 공공공간)

□ 쇠퇴지역 현황

○ 위치 : (사업범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역 및 경인로 일대 (521,000㎡)
(거점공간) 서울 영등포구 문래2가 20-2 (연면적 636㎡)

○ 일반현황 및 특성

[도시발전 현황 : 제조업중심 산업도시의 쇠퇴]

- 영등포구는 구한말 경인&경부선 철도의 개통(1899)으로 교통, 산업의 중심지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성장발전함. 영등포 및 구로 일대 전통제조업 중심으로 조선피혁주식회사, 경성방직, 조선맥주 등 기계・섬유・식품 중심이 대규모 공장지대 형성함
-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 과밀억제정책 시행으로 신규지정 불가, 기존 공장의 신증설 규제로 대규모 방직&제분 등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함
- 경공업 중심지였던 영등포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노후화가 가속화되어 기존 제조업의 소규모 영세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도시기능의 전환점에 있음

[기계금속공장밀집지역 : 국내 최고의 기계금속 시제품 제작(장인)]

- 문래동 기계금속공장밀집지역은 국내 최고의 금속시제품을 제조하는 소규모 공장 밀집지로 오랜세월 기술인의 숙련도가 높아 서울의 세운상가와 같이 장인이 남은 지역임. 하지만 유통구조의 변화, 차세대 인력부족, 소규모 생산력, 상업시설의 유입으로 공장밀집지역은 쇠퇴와 활력이 부족한 상황임
- 대상지를 둘러싼 대규모 공장 이전지에 아파트, 타임스퀘어 등 대규모 주거 및 복합상업시설 중심 개발로 섬처럼 쇠퇴한 지역으로 남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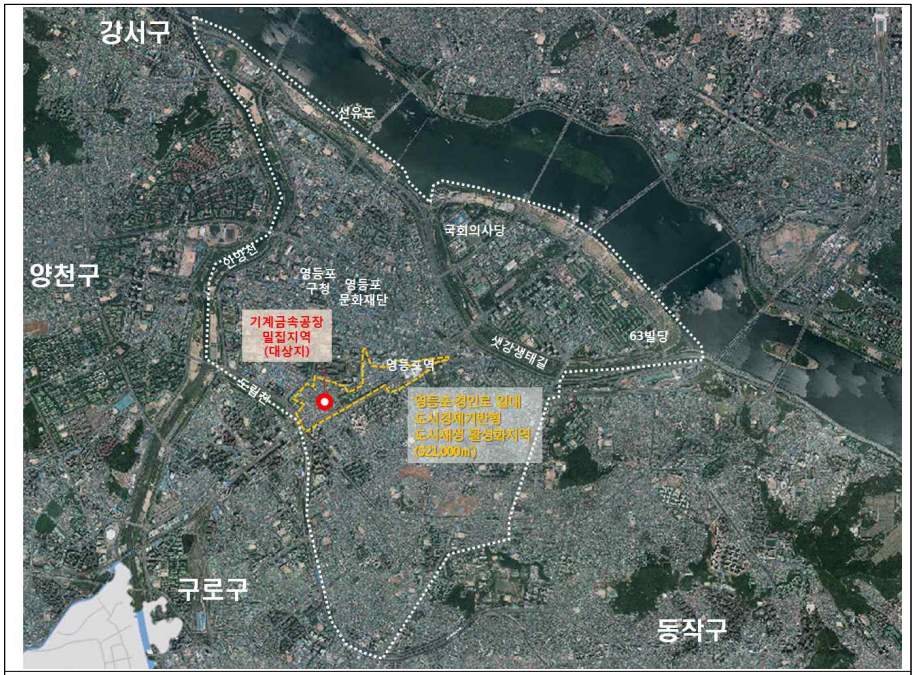
[근대산업자산 : 철도・기계・섬유・식품 등 근대 산업시설 및 건축물/근로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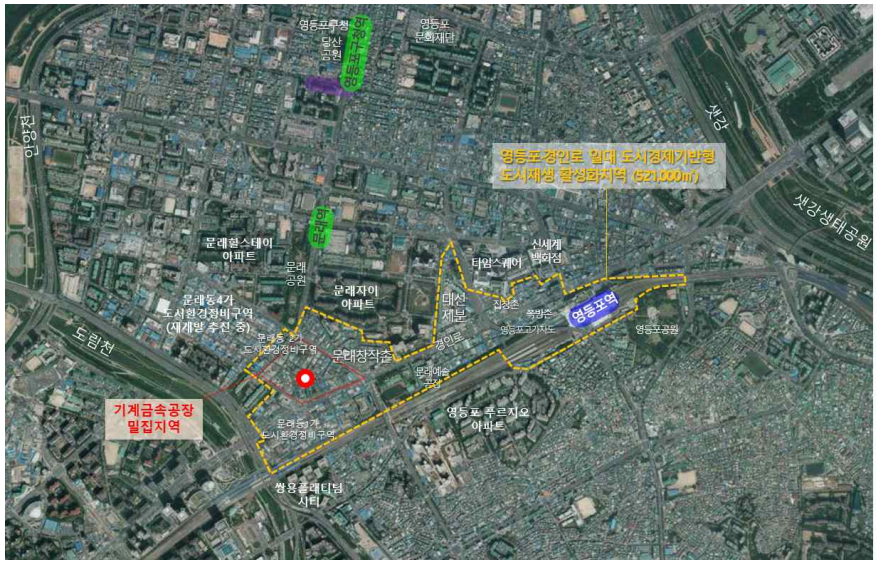
- 경부・경인 철도, 조선피혁회사, 경성방직, 조선맥주 등 기계・섬유・식품 관련 산업시설과 일제 노동자 집단거주지 영단주택과 근로자의 이야기가 회자됨

[문래창작촌과 젠트리피케이션]

- 2000년대 대학로&홍대 일대의 비싼임대료를 피해 철공소가 밀집한 문래동으로 이주한 예술가들에 의한 자생적 예술마을을 형성하고 현재 문래창작촌으로 불리움
- 2016년 기준 문래예술촌 예술가(활동가)는 150여명(추정 300여명)이며, 전시장, 작업실, 공방, 스튜디오 등의 100여개의 문화공간이 위치함
- 철공소-예술공간(공방, 전시장 등)-마을미술(골목길)이 혼재한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문래창작촌이라는 지역정체성을 형성하였지만,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예술가 및 장인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직면

○ 현황도





○ 현황이미지

- 하드웨어

○ 문래 기계금속제조업 밀집지
- 기계금속 집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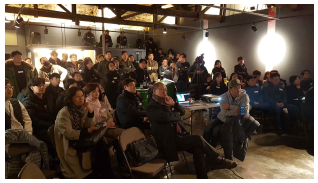
○ 문래창작촌
- 문래동 일대 예술인 유입(2000년대 초반)
- 공장2층 공실을 저렴한 임대, 예술인 유입. 공장과 예술인들이 혼재, 독특한 분위기 형성

○ 대선제분공장
- 서울시 제1호 민간주도형 도시재생(2018.11)
- 조선제분 인수 1958년 설립
- 근현대 산업유산 가치보유하여 이를 활용하여 패션쇼, 모터쇼 등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 2019.9월 부분오픈 예정

○ 영등포역 일대 집창촌 및 쪽방촌
- 집창촌, 쪽방촌, 노점상 등이 영등포역 일대 분포
- 2009년 타임스퀘어 쇼핑몰을 개발시 집창촌 지역개발 협의 무산
- 쪽방촌 1.2~1.5.평 내외 구조로 영등포고가 옆에 위치

○ 일제 강점기 집단거주지 조선영단주택
- 1941년 일제 조선영단주택은 문래동(옛 도림정), 상도동(상도정), 대방동(번대방정) 건립
- 철공소로 개보수 이용으로 '영단수퍼' 등 통해 옛 문래동이 영단주택지였음을 증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 **영등포공유원탁회의**

- 영등포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 문화기획자, 마을리더(활동가),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 매개자, 청년예술가 등이 참여하여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협력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치 모임을 형성 중임
- 2018년 11월 이후 전체위원 90여명 모임
- 온라인으로 다양한 정보공유 및 홍보 활동을 영등포 내 다양한 문화 · 예술,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이슈를 공유

○ **문래 기계금속소공인(장인)**

- 기계금속분야 기술력
- 문래동 기계금속제조업 밀지지 기반 뛰어난 기술력을 신소재 금속 가공에 접목

○ **문래예술촌 예술가 및 활동가**

- 문래지역 예술가 실태조사 시 150여명(추정 300여명) 작가 활동 (2016년. 문래예술공장)
- 개인예술가 분야 : 시각예술 66명, 실용예술(가구, 패션, 건축, 디자인, 공예 등) 35명, 공연예술 16명, 기타(기획, 문학창작, 요리, 성우 등) 26명 활동
- 공간 및 예술단체 분야 : 시각예술 13곳, 공연예술 13곳, 실용예술 2곳, 기타(문학, 방송 녹음, 복합공간 등) 6곳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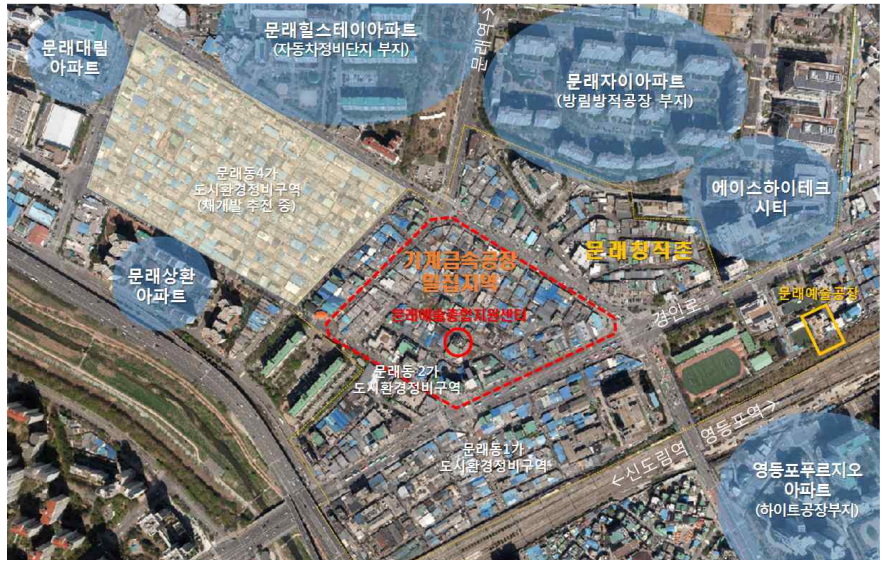
○ **쇠퇴지역에 대한 진단 및 이슈 도출**

[대상지 주변의 도시개발로 중심주에 섬처럼 쇠퇴]

- 경인&경부 철도교통, 제조산업 중심지에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장이전에 따라 대규모 주거 및 복합상업시설 개발로 도시기능의 변화하고 있음
- 문래동 인근 방림방적공장부지-문래자이아파트, 에이스하이테크시티 건립, 자동차정비단지 부지-힐스테이아파트, 하이트공장부지- 푸르지오아파트 등 건립
- 문래동 1~4가를 둘러싼 섬처럼 도시개발로 대상지는 섬같은 쇠퇴지역으로 남음. (문래동 4가는 현재 재개발 추진 중임)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정체성 소멸]

-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문래동은으 도시여행자 등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빈 철공소를 카페, 수제맥주, 퓨전식당 등 상업공간적 공간 변화. 신규아파트의 새로운 이주민이 증가하고, 영등포구역 및 경인로 도시재생사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 이에 저렴한 가격으로 철공소와 공장, 공실을 이용하던 기술장인, 예술가 및 활동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근 지역의 저렴한 공간으로 다시 이동해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있음
- 예술가들과 기계장인이 함께 만든 문래창작촌이라는 지역정체성이 상업자본과 편리함과 자산 증대를 원하는 주민으로 인해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함
- 세운상가와 같이 기술집적공간의 쇠퇴와 함께 장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



[주민-장인(소상공인)-예술가-상인 간 소통 필요]

- 삶의 공간, 생산의 공간, 창작의 공간, 교육의 공간이 중첩된 공유의 공간에 각 주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시장경제 및 개인주의적 삶 등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반목하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
- 공장밀집지역에서 쇠퇴에 도시기능 변화의 과정에서 공장 노동자&장인, 예술가&활동가, 상인&신규주민이 서로 선주민 ↔ 이주민=선주민↔이주민으로 순환 관계가 형성됨. 그에 따라 주민, 예술가·장인·상인 간 새로운 소통 방식이 요구됨
- 주체의 확대와 이해관계자의 증가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자리의 부족, 함께 대화하는 방법의 미숙으로 각자의 길로 치닫고 있는 상황임

주체 활동 공간		주체		
주거지 신규 아파트, 재개발단지	▶	선주민	⇔	이주민
생산지 철공소, 작업실	▶	장인	⇔	예술가
상업지 카페, 펍, 쇼핑산업	▶	상인	⇔	주민 도시여행자

[다양한 활동 주체들의 조직화 : 영등포공유원탁회의, 문래마을예술인회의]

- 2000년대 초반부터 문래창작촌 마을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예술가들이 영등포로 유입됨. 다양한 활동과 함께 커뮤니티를 통해 영등포구 내 다양한 지역으로 활동의 영역이 펼쳐짐
- 문래동 인근 지역(문래창작촌 포함)의 젠트리피케이션의 흐름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문래예술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문래마을예술인회의라는 새로운 자치모임을 형성하고 문래예술공장과 협력사업의 기틀을 마련 중임
- 또한 2018년 11월부터 영등포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 문화기획자, 마을리더(활동가),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매개자, 청년예술가 등이 참여한 영등포공유원탁회의가 조직됨. 영등포공유원탁회의는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협력하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치 모임으로 영등포 내 다양한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문화다양성, 소수자, 쇼셜창업 등의 이슈를 공유하고 워킹그룹을 형성해 가고 있음

□ 공공공간 현황(사업대상지)

○ 기본현황(거점공간 및 인근 지역)

위 치	- (사업범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역 및 경인로 일대 (521,000㎡) - (거점공간) 서울 영등포구 문래2가 20-2 (연면적 636㎡, 지상5층/지하1층)
거점공간 규모 및 입지	- (사업범위) 영등포구역 및 경인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21,000㎡) - (거점공간) 대지면적 216.5㎡ (용지 및 대지의 면적규모) 건축연면적 636.5㎡(지상 5층/지하 1층)
소유구분	- (거점공간) 영등포구청 매입완료(2019.4.)

현황도

○ 현황 및 특성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거점공간)이 위치한 문래동2가는 문래동 1&4가와 함께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문래동4가는 재개발이 추진 중임
- 대상지 주변부 개발로 쇠퇴한 섬처럼 위치한 문래동2가는 경인로 도시재생과 인근 공장부지에 아파트, 쇼핑몰 개발로 임대료 상승함. 오랜 삶의 터를 떠나는 철공소장인 및 예술가가 발생하고, 남은 예술가들은 문래마을예술인회의를 조직하여 문래창작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활동을 하고 있음
- 조금씩 비어진 공간은 카페, 수제맥주, 식당 등 상업시설이 유입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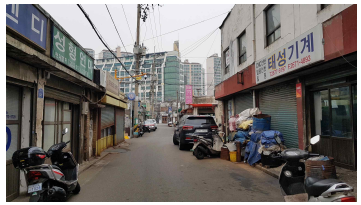
○ 장소가치 및 잠재력

- 문래동 일대에 일본이 1940년쯤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형성한 대단위 집단거주 영단주택(집단기와집) 형성되어 있음. 현재 개보수로 변형이 되었지만 기존의 집단거주지의 틀과 건축적 특성이 일부 남아 있어 도시건축여행 코스로 건축가 및 도시여행자들이 찾고 있음
- 문래동2가는 기계금속공장밀집지역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신소재 금속가공 기술이 뛰어난 금속장인(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음. 이곳은 서울의 세운상가와 같이 장인 밀집지(금속장인)라는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 대상지(문래동 2가)는 문래동 1-2-3-4가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적 도시재생 가치 확산과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장인, 예술사, 상인이 함께 하는 발견・연결・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가치를 외부로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적 잇점이 있음
- 인근 문래창작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공소장인과 예술가는 10여년 전부터 장인&예술가 협업 프로젝트 수행함으로서 스틸아트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형성되어 있음
  - 철공소장인의 시제품 전시 및 기술지원을 하는 문래소상공인특화지역센터와 예술가 창작을 지원하는 문래예술공장, 문래창작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거점공간은 예술-기술-마을 협력의 중심에 위치함

○ 활용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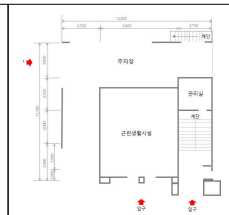
- 대상지 중앙에 위치한 거점공간인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는 기계금속공장밀집지역의 장인(소상공인)과 문래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 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선정시 연내 사용이 가능함
- 기계금속공장 밀집 지역이라는 지역가치로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창조가능한 온고지신 지역 재생이 가능함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는 건축연면적 636㎡, 지상 5층/지하 1층의 건물로 층별 공간 활용으로 개별프로젝트 추진,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창의기술 리빙랩을 통해 놀이와 일, 학습의 통합으로 도시민의 일상문제 해결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는 문래동의 중앙의 위치한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장인, 예술가, 주민, 상인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함. 또한 문래동을 기반으로 하는 각 주체들이 함께 공유테이블을 운영하고, 장인과 예술가에 의한 협의체(협동조합 등) 구성시 민관협력운영 문화공간 모델 제시 가능함

○ 현황이미지 (대상지 - 문래동 2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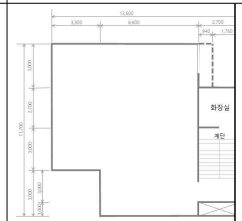
	문래역-문래공원에서 이어지는 문래동 2가
	문래동 2가 내 기계금속공장 중심의 골목길
	문래동 2가 카페, 수제맥주, 식당 등의 상업공간

○ 현황이미지-거점공간(문화예술종합지원센터(약칭 술술협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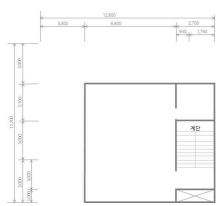
<지하층>



<1층>



<2-3-4층>



<5층>

Ⅲ. 사업계획 구성내용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가치를 기반으로 문화적 삶을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인식 전환 및 확대

- 자본시장 중심의 도시개발적 삶이 아닌 문래동의 지역가치를 주민, 장인, 예술가, 상인이 함께 즐거운 삶의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공존의 지역사회 활성화

○ 발견하지 못했거나 연결되지 않은 주체의 협력문화 형성하여 발견·연결·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 협의회, 공유테이블, 문화재생포럼로 소공인-예술인-주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리빙랩 워킹그룹 형성

  (소공인 제조업1,355개 서울소공인협회 회원 100명, 예술인 창작자300명 문래창작자 네트워크 참가예술인 100명, 마을주민 주민30,000명 문래마을계획단 참여주민 100명)

- 소공인 및 마을계획단과의 연결 및 협력을 위한 개별예술프로젝트 등 추진

○ 온고지신(溫故知新) 지역 재생 문화센터 조성 및 활성화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가칭, 예술기술융복합협력센터(약칭, 술술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옛 기억을 발굴하고 모으고 고쳐 쓰면서 새로운 지역의 가치 창조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과 협력

○ 예술·기술·마을 협력의 생태계로 삶의 기술 문화캠퍼스 형성

- 일과 놀이, 학습의 통합으로 도시와 마을이 처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술·기술·마을 협력 생태계 형성
- 예술가들의 창작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케 하는 생산활동이 되고, 문래동 소공인들은 예술가-주민과 협력하며 쇠락해가는 주문하청 생산자에서 도시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기술생산자로 거듭나며, 문래동 일대는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현장 기반 전환기술교육과 예술교육의 중심이 되어가는, 삶의 기술 문화 캠퍼스 기반 형성 및 활성화

□ 소프트웨어 사업 내용

① 도시문화아카이브

○ 사업목적 : 지역의 옛 기억을 발굴하고 모으고 고쳐 쓰면서 새로운 지역의 가치 창조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 간 : 2019. 7. ~ 2020.01
○ 대 상 : 문래동, 영등포경인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사업내용 :
- 철도, 제조공장, 건축물 등 근대산업유산과 현재의 골목길, 공간(장소), 자연자원 도시자원 탐색 및 기록
- 기계-제조-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동자의 아내, 인근 식당의 아주머니, 그 곳에 살았던 여성으로서 문래를 지켜온 옛 기억 발굴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기록아카이브 및 자원정보 집적화

○ 추진방법 :
- 영등포 산업화과정의 여성의 활동 여성의 이야기 등 지역을 기록 채집하고 이를 여성 작가(예술가)가 협력하여 작업북 제작
- 자원종합정보망 구축 연계 : 문래의 사람/콘텐츠/공간 자원 DB구축하고 아카이빙빙 그 결과를 영등포 문화재생축제에 연계 전시
- 문화지도 제작 : 문래 자원 및 문화활동 스팟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화지도 제작

② 문화재생 공유테이블

○ 사업목적 : 문래동의 주민, 장인, 예술인, 상인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리빙랩 워킹그룹 형성
○ 기 간 : 2019. 6. ~ 2020. 01.
○ 장 소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 대 상 : 대상지 내 기반 주민, 장인, 예술인
○ 사업내용 :
- 문래동 일상의 문제를 일과 놀이, 학습을 통해 해결하고 대화의 방식 습득
- 리빙랩 활동으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소공인, 예술인, 마을주민의 마실 유도
- 지역가치와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추진방법 :
- 문래동의 각 주체가 함께 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리빙랩 워킹그룹 구성
- 리빙랩 워킹그룹을 통해 마을 문제와 이슈에 대한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
- 실현 방법론 개발을 위해 리빙랩 시범프로젝트 추진
- 술술협력센터를 기반으로 생산활동 지속

③ 술술협력센터 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문래 장인&예술가 협동조합 또는 쇼셜벤처)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가칭-예**술**기**술**융복합협력센터/ 약칭-술술협력센터)

○ 사업목적 : 술술협력센터를 자주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주체 발굴 및 조직화

○ 기　　간 : 2019. 7. ~ 2020. 1.

○ 대　　상 : 문래동 기반 활동 가능한 장인 및 예술가, 주민

○ 사업내용 :

- 공공예산을 직접받아 수행이 가능한 예술가·장인 주민이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
- 문화재생 컨설팅단과 연계하여 민간 운영협의체 역량강화
- 술술협력센터 협동조합 또는 쇼셜벤처 등 구성을 위한 행정조건검토 및 준비

○ 추진방법 :

- 공간운영워크숍 : 술술협력센터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진 주체들이 건축, 도시재생, 문화기획, 조직운영 등 관련 퍼실리데이터(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통해 술술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 습득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는 영등포구청에서 리모데링 사업으로 추진예정이며 자문단이 구성되어 2019.03. 1차 자문단 회의를 추진함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1차 자문단 회의 결과]

○ 일시/ 장소 : 2019.02.27. 영등포구청 프로그램실

○ 참석자 : 문래동 예술가(2명), 소상공인(장인. 2명), 주민자치위원장, 전문가(건축가, 도시재생전문가. 2명), 문화재단(2명), 문화체육과(3명)

○ 주요내용 :

(소공인) -문래동 내 소상공인이 1300여개로 2세 교육을 위한 기술교육시설, 기술체험공간, 일과시간 외 사용가능한 회의가능한 공간 필요

(예술인) -기술과 예술을 매개로 보다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교육프로그램 필요
-소공인(장인)과 예술인이 함께 근무 및 운영하는 자치적 방식 요구
-단순한 깨끗한 공간이 아닌 컨셉 및 운영에 적합한 공간구성 필요

(전문가) -예술가와 기술 등 문래동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
-민간이 자율적 운영 및 관리를 희망시 공공의 운영 위탁이 가능한 협동조합 등의 협의체 조직을 만드는 것을 준비해야 함
-공간이 크지 않기에 주민의 함께 하고 소공인과 예술인이 자치적 활동이 가능한 거점공간으로서 접점을 모색해야 함
-리모델링 전 공간 활용에 대한 시범운영프로젝트로 공간 활성성 테스트

(주　민) -오래된 건물이 있어 위험성을 있음. 깨끗한 환경정비 희망함

④ 문화재생포럼

○ 사업목적 : 영등포의 문화자원, 콘텐츠, 장소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발전방안을 제고하는 지식교류하고 문화가치, 지역가치를 기반한 도시재생 의제 선포

○ 기　　간 : 2019. 7. ~ 2020. 1. (분기별 1회. 총 3회)

○ 참 석 자 : 문화재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지역전문가, 문화기획자, 마을활동가 등

○ 사업내용 :

-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문래동(영등포)의 과거와 현재 가치와 자산에 대해 새로운 접근으로 미래의 가치를 창조
- 지역의 과거 및 현재의 사람/장소/콘텐츠의 가치 부여(사업 아이템 발굴)
- 도시발전과정에 있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및 역할 논의
- 예술이, 기술인, 마을주민이 함께 발견·연결·협력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온고지신의 지역 재생을 선포

○ 추진방법 :

- 문화재생, 도시재생 관련 관심 있는 서울/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네트워킹
- 리빙랩 워킹그룹, 술술협력센터 협의체, 전문가 함께 하는 문화재생포럼으로 운영
- 포럼은 도시문화아카이브, 술술협력센터 시범운영프로젝트, 문래지역브랜드 축제 등과 연계 운영

⑤ 술술협력센터(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프로젝트

○ 사업목적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공간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 탐색

○ 기　　간 : 2019. 7. ~ 10. (1-2차 구분 운영)

○ 장　　소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 대　　상 : 영등포&문래동 기반 장인 및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

○ 사업내용 :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의 공간 탐색을 위한 현장투어/ 삶의 흔적 기록
- 공간 활용 제안에 대한 시범운영 프로그램 추진

○ 추진방법 :

- 공간 활용성 테스트 및 운영 프로그램의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각 주체가 함께 작업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오픈스튜디오로 운영
- 협의체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 설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술술협력센터의 개관 이후 프로그램 기획
- 도시문화아카이브, 공유테입블 및 포럼, 축제, 회의 등으로 공간 활용
- 사업의 30%는 청년예술가, 청년소상공인 사업참여 쿼터 고려

⑥ 문화재생 리빙랩 시범프로젝트(제안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주민, 예술가, 장인 등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 예술·기술·마을 협력 생태계 조성(삶의 기술 문화 캠퍼스화)
○ 기　　간 : 2019. 7. ~ 10.(1-2차 구분 운영)
○ 장　　소 : 술술협력센터(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지 인근
○ 대　　상 : 주민(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예술가, 장인
○ 사업내용 :
- 예술가들의 창작이 지역민의 삶의 질에 향상시키는 생산활동
- 소공인들의 도시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기술활동
-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현장 기반 전환기술교육과 예술교육

○ 추진방법
- 우리 주민이 일상의 문제라면 제일 중요한 제안으로 주민, 예술가, 장인인 주체가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형 제안 시범프로젝트
- 사업의 30%는 청년예술가, 청년활동가가 사업기획운영을 하도록 추진

○ 대상시설 활용 리빙랩 시범프로젝트
- 마을기술 협력 창의기술랩 : 랜드마크 인스톨레이션 개발, 문래지역브랜드 축제 개발 등
- 문래 도시문화아카이빙 랩 : 문래여성과일 인터뷰 결과, 문래자원정보
- 술술협력센터 리모델링 랩 : 문래예술지원센터 공간 개선, 프로그램 기획

○ 일반 프로그램 예시
- 깨끗하게 살고 싶어 : 문래동 대청소의 날, 디자인 공공 쓰레기통, 무분별한 벽화 제거 등
- 문래동 보물찾기(마을맵핑 / 골목여행 / 옥상정원 / 마을해설사) 등
- 메이커스, 예술교육, 직업체험학교 등 영역 제한 없이 추진 가능

⑦ 문화재생축제

○ 사업목적 : 문화재생의 예술·기술의 가치를 반영한 브랜드축제 기획 및 운영
○ 기　　간 : 2019. 10~11.
○ 장　　소 : 대상지 및 인근 지역
○ 사업내용 : 기계금속장인과 예술인을 가치와 역량을 담은 축제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공동의 사회적 유대감을 갖는 축제
○ 추진방법 :
- 대상지 내 펼쳐지는 본 사업의 모든 개별프로젝트를 동시 연결
- 기계금속장인과 문래예술인, 리빙랩 워킹그룹, 협의체 등 모두 참여

⑧ 문화재생 컨설팅

○ 사업목적 : 영등포구 문화적 도시재생의 과정에 대하여 도시전문가, 도시재생, 지역문화 등의 전문가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전문가에 의한 환류
○ 기　　간 : 2019. 6. ~ 2020. 1.
○ 대　　상 : 도시전문가, 도시재생, 지역문화, 문화도시, 문화기획 관련 전문가
○ 사업내용 : 도시문화아카이브, 공유테이블, 문화재생포럼, 리빙랩 시범프로젝트, 술술협력센터 시범운영프로젝트, 축제 등 세부사업 모니터링 및 환류
○ 추진방법 : 공유테이블, 문화재생포럼 등 전문위원으로 참여 및 각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 진행

□ 하드웨어 사업 내용

① 술술협력센터(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공간구상 용역

○ 사업목적 : 운영 주체에 적합한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공간계획 수립
○ 기　　간 : 2019.07. ~ 10.
○ 사업내용 :
- 술술협력센터 컨셉/ 공간구성 / 설계가이드라인 구성
- 날 것의 술술협력센터의 시범운영프로젝트 결과 피드백

○ 추진방법 :
- 협의체(장인+예술가)와 기 운영 참여자의 의견 수렴
- 공간활용에 대한 제안을 받아 시범운영을 통해 공간 가용성 검토
- 운영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으로 지속가능성 탐색 및 운영방법 환류

② 술술협력센터(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사업목적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를 커뮤니티 공간 조성
○ 기　　간 : (환경정비) 2019. 6 / (예술간판제작설치) 2019. 10 ~ 2020. 02.
○ 대　　상 : 술술협력센터(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
- 술술협력센터 시범운영프로젝트 및 리빙랩 시범프로젝스 사용을 위한 환경정비
- 예술가와 장인의 협업에 의한 지역성을 반영한 예술간판 제작(디자인/제작/설치)

□ 사업추진체계(휴먼웨어)

○ 사업담당부서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 민간협업파트너(기관 및 단체명) : 영등포문화재단

○ 사업추진거버넌스 구성

- 거버넌스 참여자 : (워킹그룹) 문래마을예술인회의(예술인)+문래기계금속소공인(장인)
  (연계협력) 영등포공유원탁회의
  (참 여) 지역주민(청소년, 청년) 및 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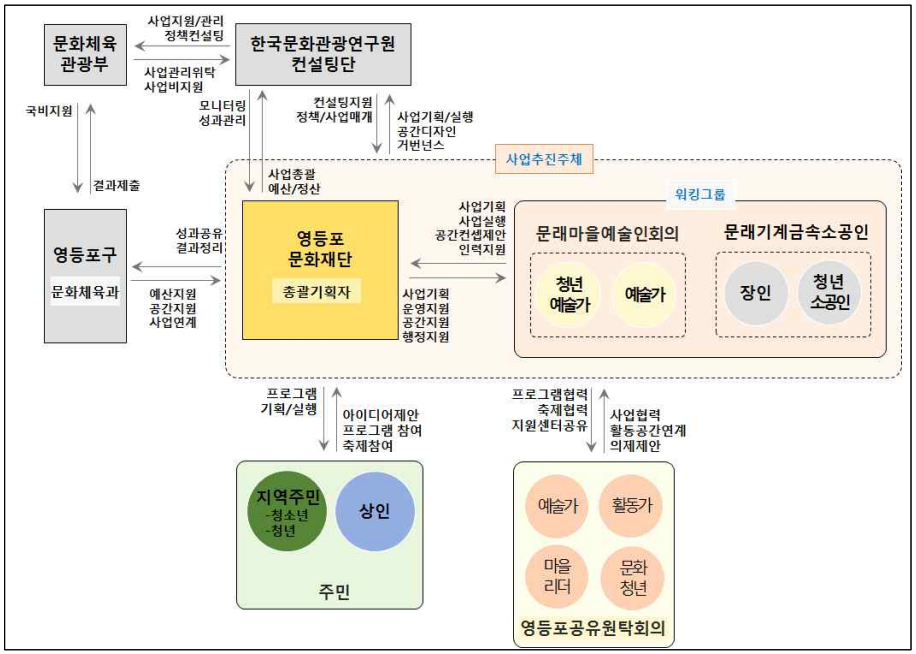
- 거버넌스 구축 및 유지방법 :

(거점공간운영) 예술인+문래기계금속소공인 중심의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위탁운영 가능토록 협동조합 또는 쇼셜벤처 등으로 조직화

(대상지 활동) 영등포 기반 활동가 모임인 영등포공유원탁회의과 운영협의체, 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공유테이블을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운영

(컨설팅/자문단) 공유테이블 / 포럼 / 술술협력센터 공간구상 등 전문위원 참여

○ 사업추진체계도



□ 사업연계 및 복합 추진계획

(생략)

□ 문화재생 운영의 지속가능방안 제안

(생략)

□ 기대효과

○ 영등포·경인로 일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느린 젠트리피케이션 유도

○ 영등포·경인로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 장인, 예술가, 상인의 각 주체별 소통창구 형성

○ 문래장인예술가협동조합을 구축하고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 형성

○ 문래동의 철공소장인, 문래창작촌 이라는 지역적정체성을 지속

○ 서울시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적 도시재생의 성공모델 제시

□ 사업추진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문래 도시문화아카이브		도시자원탐색/ 아카이빙(기록) / 아카이빙북제작								
문화재생 공유테이블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 설명회	공유테이블				공유테이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문화재생 포럼				포럼		포럼			성과 공유 포럼	
술술협력센터 시범운영 프로그램		공간 투어	공간 활용 시범운영 프로젝트 (1차)		공간 활용 시범운영 프로젝트 (2차)					
리빙랩 시범프로젝트 (제안사업)		공간 투어	리빙랩 시범프로젝트 (1차)		리빙랩 시범프로젝트 (2차)					
문화재생축제							축제			
문화재생 컨설팅		도시아카이브/공유테이블/포럼/프로그램/축제 등 전문가컨설팅 / 모니터링 / 환류								
술술협력센터 공간구상			공간구상 (컨셉/공간구성/가이드라인)							
술술협력센터 커뮤니티 공간조성 (환경정비/예술간판)		환경 정비					예술간판 제작 및 설치			

Ⅳ. 소요 예산

□ 사업비 구성 : 400,000천원 (국비 200백만원 / 지방비 200백만원)

○ 휴먼웨어 : 120백만원 - 총괄기획자, 전문원, 행사스텝(단기) 활용
○ 소프트웨어 : 200백만원 - 도시자원아카이브, 문화재생 공유테이블/포럼, 협의체 구성, 리빙랩 시범프로젝트, 술술협력센터 시범운영프로젝트, 축제 등
○ 하드웨어 : 80백만원 - 공간구상 용역 / 커뮤니티 공간 조성(환경정비, 예술간판)

□ 사업비 산출내역(사업비 산출은 지원기준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

(생략)